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 추진

산업자원부

2005년 산업자원부 연두 업무보고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3월 3일 금년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부문간 동반성장과 2008년 세계 산업4강, 8대 무역강국 및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보고하였다.李장관은 작년에는 사상최고의 수출실적(2,538억불)과 4년만의 외국인투자 증가세 전환(03대비 97.4% 증가한 128억불), '자립형 지방화'의 추진체제 완비, 차세대성장동력의 본격 추진, 에너지 자주공급 전환점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부문간 양극화의 심화, 수출 호조세의 내수 파급 효과 미흡, 에너지시설 관련 갈등구조의 지속으로 장기현안과제 해결 지연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정책여건과 고객수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 (정책비전)을 위하여 ①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 ②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③선진 통상국가의 기반 조성, ④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 등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부가 보고한 금년도 주요 시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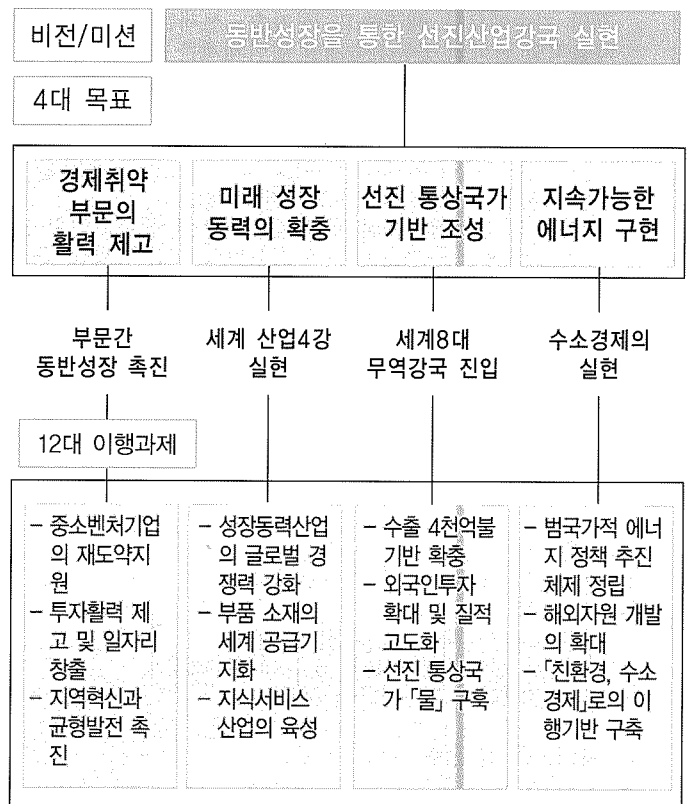
(1)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한 대응전략 추진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부응하고, 다른 나라에 앞서 수소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경제시대 대응 종합마스터플랜(에너지체제 개편, 관련 기술개발·보급, 산업화전략 등 포함)을 상반기중에 수립
- 수소경제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추진
 - 핵심기술 개발: 연료전지 자동차(80kW) 및 버스(200kW), 발전용 연료전지(250kW), 다목적용 연료전지로봇 등
 - 시범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실증단지(파워파크) 조성, 연료전지와 첨단 단열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 건설 등

(2) 현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의 개발

-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중견기업 육성관련 법적기반 보완
- 대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 2005년 산업자원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체계 >



• 가치사슬 단계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R&D	생산	마케팅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기획부터 공동 연구 • 공동 특허컨소시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기업펀드 조성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 (싱글 PPM 품질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구매정보 포털 구축 • 공동물류 시범사업 추진

- 「영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수립추진(상반기중)
 - * 봉제(산자부), 소매(중기청), 화물·택시(건교부), 이·미용(복지부) 등
-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 및 보완대책 추진
 - 현행 14개 부처, 234개 지원제도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중복제거 및 연계성 제고
 - 단체수의계약제도·벤처확인제도 폐지 보완대책 마련
 - * '04'05.1월 수립한 중소·벤처기업 대책(3회)은 추진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없이 후속조치하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

(3)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제정

- 지원대상 : 지역무역협정 및 다자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중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근로자
- 지원내용 :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 채택
 - ①기업 : 정보제공, 긴급경영안정, 경영·기술컨설팅, 기술개발·입지확보, 업종전환 등 지원
 - ②근로자 : 직업훈련 보조, 구직·전직비용 등 지원
 - * 추진일정 : 3월중 민관합동 T/F 설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마련 → 금년 정기국회 상정 → 내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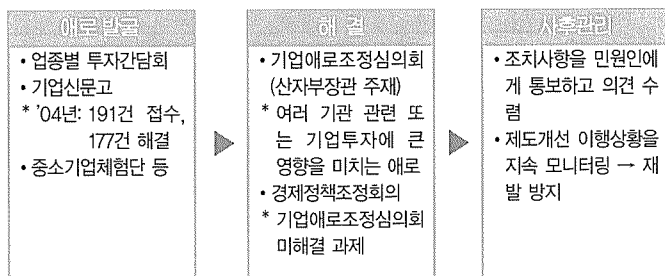
(4) 교토의정서 발효 ('05.2.16)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대책

- '05년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협상대책 마련
- 의무부담 정도 및 부담시기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협상대응논리 개발

- 에너지·환경각료회의('05.3), APEC 회의('05.11) 등 각국 대응동향 파악 및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를 위한 통계체제 구축
-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개발(상반기), 국가온실가스 통계 체제 구축(하반기)
 - *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실시 (05.2~11)
-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에너지절약 등 지속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

(5)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투자애로해결체제 운영

- 금년 들어 제조업 가동율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 ⇒ 대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전망
 - * 제조업평균가동률(%) : (04.1) 80.4 → (3/4) 79.2 → (11) 81.8 → (12) 79.7 → (05.1) 81.8
- 금년부터 가동할 투자애로해결시스템의 내용



- 설비투자 활성화 주요 프로젝트별 전담직원(PM)을 지정·운영
-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설비투자 밀착지원
- *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업종(%), '04) : 반도체(20.8), 자동차(11.8), 조선(10.8), 정밀화학(10.4), 통신기기(8.8), 일반기계(8.7)

